

무너지는 40대 家長들

광주 실업급여 신청 전년보다 50% 급증

이혼 늘고 비관 자살 등 가정 붕괴 우려

“실직을 당한 뒤 나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것은 많은데...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맞이할 때 정말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장성군에 사는 김모(49)씨는 지난해 12월 해고됐다. 중·고교에 다니는 자녀 3명을 위해 빨리 새 직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석 달이 훌쩍 지나가버렸다.

김씨는 “학기초라 아이들에게 돈이 들어가는데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마저 없어 큰일이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최근 광주중립고용지원센터를 찾았다.

가정의 기둥인 40대 실업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40대 가장은 대부분 중·고교와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직 증가가 가정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큰 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7일 광주에서는 김모(43)씨가 실직 후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40대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7% 늘어난 3만1천57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은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광주중립고용지원센터는 지난해 1월 40대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83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2%나 늘어난 것이다.

그 다음 20대 이하 신청자 증가율이 44.5%(862명)로 뒤를 이었고, 30대 35.4%, 50대 18.1%, 60대 4% 순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직장

을 잃고 재취업한 40대 가운데 상당수는 새로운 직장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이 미숙하거나 낮은 급여가 주요 원인이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서 지난해 1월 실업급여를 신청한 40대 중 53.1%는 실직 전 사업장에서 1년도 근무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40대 실직 증가가 사회 전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혼과 실직 등 남성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사)한국남성의전화 관계자는 “실직 가장들은 하루 빨리 재취업해 가족을 부양하고 싶어하지만 현실적인 취업 장벽에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실직한 뒤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한 가장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어, 가정의 실직으로 인해 가정마저 붕괴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산수유의 봄 유혹

15일 구례 산동면 산수유마을을 찾은 상춘객들이 셋노란 산수유 꽃을 감상하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구례군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산동면 지리산은천지구 일원에서 ‘산수유꽃 축제’를 개최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加 에드먼턴 2강 압축

차시장, 브뤼셀 FISU본부에 유치 신청서 제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경쟁구도가 ‘2강’(광주·캐나다 에드먼턴), ‘1약’(대만 타이베이)으로 압축됐다. <관련기사 3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인 박광태 광주시장은 14일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본부에서 열린 후보도시 회의에 참석

해 유치 신청서(Bid File)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도시는 광주를 비롯해 캐나다 에드먼턴과 대만 타이베이 등 3곳이다. 애초 유치를 희망했던 스페인의 그라나다는 동계유니버시아드로 전환해 단독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회의는 에릭 샌트롱 FISU 사무총장의 후보도시 소개에 이어 각 도시 대표의 연설과 FISU 측의 향후 일정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폴란드 포즈난과 스페인 비고 등 6개국 8개 도시가 유치의향을 밝혔으나, 3개 도시가 최종적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게 됐다.

그러나 타이베이의 경우 국제대회 유치 경험이 없고 이번이 첫 번째 도

전이어서 사실상 이번 유치전은 광주와 에드먼턴의 양강 구도로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에드먼턴은 198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 개최했고 국제 교통 요지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다목적 경기장과 수영장 등 생활스포츠 인프라가 잘 구축돼 광주의 강력한 라이벌로 꼽힌다.

반면, 광주는 지난해 보여준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활동과 재도전에 따른 높은 인지도,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해 유치를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으로 삼아 2015년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전략과 시민의 힘을 모아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ISU는 타이베이에 이어 다음 달 6~9일 나흘간 광주에 대한 현지실사를 거쳐 5월23일 브뤼셀에서 집행위원회 총회를 열어 개최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

/브뤼셀=공동취재단·정후식기자 who@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정부 세제개편...세율 최고 66%→33%로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6~35%의 일반세율로 내게되며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최고 66%나 내야했던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관련기사3면>

기업이 부채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팔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며 잡세어림(일나누기)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해주는 등 기업 구조조정이나 일

자리 나누기를 지원하는 세제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1가구를 16일 이후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차익이 작을수록 세금 감소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6일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폐지돼 올해 말까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6~36%, 내년부터는 6~33%로 과세된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사흘째 통행 차단

북한이 15일로 사흘째 남북 육로통행을 차단한 가운데 개성공단내 우리 국민의 귀환 지원 사태가 16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5·8면>

15일 개성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귀환이나 개성공단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입주기업들이 주문 취소, 원부자재 수송 곤란

등 경영 관련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현지 생활에 필요한 식자재 및 난방용 가스 등의 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육로통행이 ‘빠른 시일내에’ 재개될 경우 업체들의 방북을 계속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16일 방북 예정자 655명, 귀환 예정자 214명에 대한 출입 계획을 14일 북측에 통지했으며 지난 13일 2차 통행 차단 조치 이후 북에서 돌아오지 못한 공단 관계자들의 출입 계획은 별도로 북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안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흥이산업 직원 4명이 개성공단에 체류 중이다. 15일 현재 이들 직원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으며 연락도 유지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

최고의 입지여건 최대 수익성 최면 최안전 최안락 최편안 최친화 최친근 남부대학교

남약신도시 주상복합용지분양

3/26 공개입찰

수익률 최대
공적용 200%
입원시설 최대 400%

남부대학교

남약신도시

061-280-0600